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관한 일연구

金 瑛 洙*

1. 머 리 말
2. 첩자에 대한 인식과 병법 탐구
3. 첩보전 사례와 첩보술
4. 맺 음 말

1. 머 리 말

한국 고대사에서 삼국시대 후반은 삼국간에 존망을 건 치열한 전투와 전쟁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특히 7세기에는 수·당이 삼국의 대립과 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삼국의 투쟁은 국제전의 양상으로 확대되었다.¹⁾ 삼국의

*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 1) 이와 관련하여 7세기 삼국사회의 변동에 따라 파생한 대내적 모순과 대외적 모순의 결과로 나타난 동아시아 국제전을 시대구분의 의미를 담보한 역사적 사건으로 파악한 연구가 주목된다. 김영하a, 「신라의 백제통합전쟁과 체제변화-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전과 사회변동의 일환」, 『한국고대사연구』 16, 1999, 101~150쪽.

쟁패에서 시종 열세에 처해 있던 신라는 7세기 들어 고구려가 수·당과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백제가 의자왕 집권 이후 내부 신구 세력간의 갈등²⁾으로 흥역을 치르는 등 대외적 여건의 호기를 틈타서 군사적 행동과 대당 외교 등 대외관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신라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에 나설 수 있었던 데에는 김유신과 김춘추의 역할이 컸다. 김춘추는 몇 차례에 걸친 외교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이를 기반으로 왕위에 올랐으며, 김유신은 내부적으로 김춘추를 도우면서 비담의 난 진압 등 신라 내에서 자신의 정치·군사적 입지를 강화했다.³⁾

특히 김유신은 가야 왕족의 후손으로 김춘추 가문과의 결합 등을 통해 신라 내에서 자신과 가문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한편, 자신의 군사력과 뛰어난 지략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이 때문에 그는 삼국 통합⁴⁾의 주역으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⁵⁾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⁶⁾ 그러나 김유신에 대한 평가와 연구는 표면적

2) 김주성,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동향과 백제멸망」, 『백제연구』 19, 1988, 263~276쪽.

3) 김춘추의 집권과정과 그에 따른 김유신과의 유대관계 등을 자세히 검토한 연구로는 박순교, 『김춘추의 집권과정 연구』(경북대학교박사학위, 1999)가 있다.

4) 종전의 '삼국통일'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삼국통합'이란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으며(이호영, 『신라 삼국통합과 여·제 패망원인연구』, 경인문화사, 1997), 신라에 의한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국성립론'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연구(김영하a, 앞의 논문; 김영하b, 「신라 삼국통일론은 타당한가」, 『역사비평』 20, 1993) 등이 나왔다. 본고에서는 '삼국통합'이란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5)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총 10권의 열전 중 그의 열전을 첫머리에 세 권이나 마련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했으며, 조선 영조 때 대제학을 지낸 홍량호는 1734년 『해동명장전』을 편찬해 내면서 역시 김유신을 맨 첫머리에 안배했다.

6)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홍시준, 「탄현고-계백의 삼영과 김유신의 삼도」, 『역사학보』 35·36, 1967.

정영호, 「김유신의 백제공략 연구」, 『사학지』 6, 1972.

김열규, 「무속적 영웅고-김유신전을 중심으로 하여」, 『진단학보』 43, 1977.

문경현, 「삼국통일과 신김씨 가문」, 『군사』 2, 1981.

으로 나타난 그의 무공에 대한 칭송과 충효 등 국가적 차원의 이데올로기 강조에 편중되어⁷⁾ 정작 군사가(軍事家)로서 그의 구체적인 면모를 밝히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다행히 최근 군사학 내지 군사사의 각도에서 김유신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을 다룬 연구⁸⁾가 나와 김유신에 대한 편향적 연구를 보완해주고 있다.

한편 군사가로서 김유신의 특별한 능력, 구체적으로는 그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주목한 선구적인 연구⁹⁾가 있었고, 고대 첩자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김유신의 첩보술이나 첩자활용을 강조한 연구¹⁰⁾도 나왔다. 그

신형식, 「김유신 가문의 성립과 활동」, 『이화사학연구』 13·14, 1983.
 정중환, 「김유신론」, 『고병익선생회갑기념논총』, 1984.
 김태준, 「김유신전 연구」, 『신라 문학의 신연구』(신라문화재 학술발표회 논문집 7), 1986.
 김상현, 「신라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통일기 신라사회 연구』, 1987.
 성주탁, 「백제 탄현 소고-김유신 장군의 백제공격로를 중심으로」, 『백제논총』 2, 1990.
 허중권a, 『신라 통일전쟁사의 군사학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허중권b, 「삼국시대 군사사상에 관한 연구(II)-김유신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3사교 논문집』, 1997.
 이기동, 「김유신-지성으로 이룩한 삼국통일의 위업」, 『한국사 시민강좌』 30, 일조각, 2002.
 정구복, 「김유신의 정신세계」, 『청계사학』 16·17집, 2002.
 서의식, 「김유신」, 『한국사인물열전』(한영우선생정년기념논총 1), 돌베개, 2003.
 안영훈, 『김유신전 연구』, 민속원, 2004.

7) 김유신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백제 멸망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그 정도가 더욱 증폭되었다. 즉, 백제 멸망의 원인을 사료상에 나타난 표면적 의미에만 집착하여 고찰함으로써 그 대척점에 있는 김유신의 무공과 활약이 상대적으로 과장되는 착시현상이 생겼다. 또 역대로 끊임없이 개작되어 온 '김유신 전기'는 역사의식이 고조되는 시기마다 등장하여 당대 역사 현실과 일정한 대응 관계를 맺으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안영훈, 위의 책, 218쪽). 이러한 경향은 김유신이란 인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와도 연계되기도 한다.

8) 허중권a·b, 앞의 논문; 허중권c, 「삼국시대 소부대 리더의 가치관과 전투에서의 역할-신라 삼국통일의 정신적 기반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52, 1999.
 9) 直木孝次郎, 「古代朝鮮における間諜について」, 『橿原考古研究所論集』 5, 吉川弘文館, 1979 (이 논문은 한국사연구회 웹진에 이강기에 의한 번역문이 등재되어 있다. www.koreanhistory.org).
 10) 줄고a, 「고대 첩자고」, 『군사』 27, 1993.

러나 이 연구들은 사료상에 보이는 김유신의 첩보술과 첩자활용에 주목하는 정도에 머무른 채 군사학 내지 병법의 관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지 못했다.¹¹⁾

신라의 삼국통합 과정에 김유신이 미친 범위의 크기와 심도 및 후세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¹²⁾ 이에 필자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되 연구 시각을 달리하여 군사가로서 김유신의 첩보술과 첩자활용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군사 전략가로서 김유신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2. 첩자에 대한 인식과 병법 탐구

(1) 무예 수련과 첩자 경험

사료에 따르면 김유신은 일찍이 삼국병합의 의지를 품고 산중에서 심신

승려들의 첩자 활동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김복순, 「삼국의 첩보전과 승려」, 『한국불교문화사상사』(권상 : 가산이지관스님회갑기념논총), 1992.
 김복순,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2002.

11) 일부 연구에서 부분적이거나 김유신의 첩보 활동(정보전술)과 첩자활용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었다.
 이호영, 앞의 책, 176~177쪽.
 허중권b, 앞의 논문, 146쪽.
 서의식, 앞의 글, 79쪽.
 이도학, 「눈부신 신라의 첩보공작」, 『한국고대사 그 의문과 진실』, 김영사, 2001, 246~251쪽.
 12) 상대적으로 풍부한 양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김유신에 대한 연구는 그 폭과 깊이 면에서 활발하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의식, 앞의 글, 96쪽.

을 수련한 것으로 나온다.

사료 1-1. 진평왕 건복 28년 신미년(611)에 공은 나이 17세로 고구려·백제·말갈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의분에 넘쳐 침략한 적을 평정할 뜻을 품고 홀로 중앙 석굴에 들어가 재계하고 하늘에 고하여 맹세하였다.¹³⁾

이 과정에서 김유신은 신비한 노인 난승을 만나 방술(方術)의 전수를 애원했고 결국 비법(秘法)을 전수받는다.¹⁴⁾ 이듬해인 612년에는 닥쳐오는 적국의 공격¹⁵⁾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홀로 보검을 가지고 열박산 골짜기에서 하늘과 중앙에 기도한 결과 보검에 신령을 받는 체험을 한다.

13) 『삼국사기』 열전 제1 김유신(상). 『삼국사기』의 역문은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정신문화연구원, 1997)에 따랐다. 원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한다. 김유신이 일찍부터 삼국통합의 의지를 갖고 있었음은 이 기록에 이어지는 신비한 노인 난승의 말에 “그대는 어린 나이에 삼국을 병합할 마음을 가졌으니 또한 장한 일이 아닌가?”라는 대목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권1, 기이 제1 김유신)에는 “김유신이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는 일을 밤낮으로 깊이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김유신의 삼국통합 의지를 전하고 있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사료의 인용은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이다. 따라서 김유신(상)(중)(하)로 표시한다. 『삼국유사』 역문은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을유문화사, 2002)에 의거했다.

14) 이 부분은 흡사 西漢 ‘開國三杰’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張良의 젊은 날 경험을 연상시킨다. 즉, 『史記』 권55(留侯世家)-2034~2035에 따르면 장량은 젊은 날 滄海 역사를 고용하여 진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후 하비 지방으로 숨어 지내다 신비의 한 노인(黃石公)을 만나 『太公兵法』를 전수받는다.

15) 554년 신라가 백제와의 관산성 전투에서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 612년 이전까지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공격을 받은 횡수는 기록상 7회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공격 횡수는 2회이다(이호영, 앞의 책, 67~73쪽). 그런데 신라가 고구려의 신라 국경 간여에 최초로 반발하여 발생했던 실직에서의 충돌이 있었던 450년 이후 660년 백제를 통합하기까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치른 전쟁은 총 62회(고구려 26회, 백제 36회)이며 이 중 공격은 18회, 방어는 44회로 방어가 두 배 이상(허중권a, 앞의 논문, 27~30쪽)으로 전반적으로 수세에 처해 있었음 알 수 있다. 따라서 612년 무렵 김유신이 닥쳐오는 적국의 공격에 강한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신라의 이러한 수세적 상황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 종래 연구자들은 대체로 그가 삼국통합의 의지를 더욱 굳힌 계기로 파악하고 있다. 그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미륵불을 신앙한 흔적’,¹⁶⁾ ‘무속적인 신선사상의 영향’,¹⁷⁾ ‘무속적 체험으로서 제1차적 신비체험, 제2차적 신비체험’,¹⁸⁾ ‘화랑도에 딸린 정신적 지도자인 승려로부터의 불교 교리 습득과 신앙적 체험의 윤색’¹⁹⁾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늘에 의지하고 천명에 따르는 김유신의 인생철학이 기틀을 다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²⁰⁾

그러나 무장이나 군사가로서 김유신의 모습을 염두에 둔다면 이 과정은 그가 무장(군사)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신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그가 배우기를 갈망한 ‘방술’이나 난승이란 신비한 노인에게서 받은 ‘비법’은 치국방략이나 병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보검에 신령을 기원한 대목은 무(武)와 무예 수련에 대한 강렬한 동경과 집착을 엿보게 한다.²²⁾ 요컨대 젊은 날 그의 수련과정은 그가 훗날 문무를 겸비하는 탁월한 군사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젊은 날 김유신은 무예를 수련하던 과정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데, 이 경험은 첩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료를 보자.

사료 1-2. (유신의) 나이 18세가 되던 임신년(612)에 이르러 검술을 익

16) 이러한 이해는 三品彰英 이래 김상기, 이기동 등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기동, 『신라의 골품제도와 화랑도』, 일조각, 1984, 306~308쪽과 정구복, 앞의 논문, 597쪽 참고.

17) 이기동, 위의 책, 316~318쪽.

18) 김열규, 앞의 논문, 92쪽.

19) 정구복, 앞의 논문, 597~598쪽.

20) 김태준, 앞의 논문, 149쪽; 정중환, 앞의 논문, 174쪽.

21) 이 체험을 ‘무인의 비법을 배웠음을 강조’한 부분으로 이해한 연구자도 있다(김태준, 앞의 논문, 149쪽).

22) 『삼국유사』(권1, 기이 제1 김유신)에는 18세 무렵 검술을 익혀 國仙이 되었다고 했다.

혀 국선(國仙)이 되었다. 그 당시 백석(白石)이란 자가 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몇 해 동안 낭도에 속해 있었다. 김유신이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는 일을 밤낮으로 깊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백석이 그의 계획을 알고는 유신에게 말하였다. “제가 공과 몰래 그곳을 먼저 정탐한 뒤에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신은 기뻐하며 몸소 백석을 데리고 밤에 출발하였다.²³⁾

위 기록은 열여덟에 화랑이 된 김유신이 백석이란 정체불명의 낭도의 권유를 받고 고구려와 백제를 염탐하러 길을 떠나게 된 과정을 전하고 있는데, 『삼국사기』 그의 열전에는 그가 15세에 화랑이 되었고 17세에 고구려·백제·말갈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에 울분을 터뜨리며 이들을 평정하겠다는 뜻을 굳혔다고 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다(사료 1-1). 이에 삼국통합의 대업을 꿈꾸던 김유신은 그 준비의 일환으로 적국의 상황을 엿보기 위해 백석이란 자와 길을 떠난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이 무렵 김유신이 중악에 들어가 목욕재계하고 방술(비법)을 익힌 것으로 되어 있다.

젊은 김유신은 백석의 권유에 별다른 생각 없이 호기만을 앞세워 승낙하고 직접 길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내력을 알 수 없는 백석이 몇 해 전부터 화랑에 들어와 낭도로 행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다분히 신비한 설화적 색채가 강하여 사실로 믿기는 힘들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길을 가다 잠시 쉬던 김유신 앞에 세 처녀가 나타나 김유신과 속마음 터놓고 대화를 하던 중 처녀들은 잠시 백석을 따돌리고 숲으로 김유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여기서 처녀들은 신선으로 모습으로 변하더니 자신들을 나라를 지키는 내림, 혈레, 골화의 세 군데 신령이라고 소개한 다음, 적국이 유신을 유인하여 데려가는 것도 모르고 따라 가길래 이렇게 만류하러 왔다고 했다.

23) 『삼국유사』(권1, 기이 제1 김유신).

유신은 놀라 잠시 쓰러졌다 일어나 신령들에게 절을 하고 물러나와 백석에게 중요한 문서를 빼놓고 왔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백석을 결박한 다음 사실을 털어놓게 했다. 그러자 백석은 자신은 고구려 사람으로, 점쟁이 추남이 나라 일에 대해 점을 쳤다가 왕에게 벌을 받아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면 장군으로 태어나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노라 저주하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고구려 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 서현공(김유신의 아버지) 부인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추남의 저주를 막기 위해 자신을 신라에 보내 유신을 해치게 한 것이라고 했다. 김유신은 백석을 처형하고 음식을 갖추어 세 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니 신령들이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사를 받았다.

삼국통합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될 영웅으로서의 김유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설화적 색채가 농후하지만, 이 기사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고구려는 자신들의 치밀한 첩보망을 통해 장차 신라를 이끌 재목으로 김유신에 주목했다. 그리고는 김유신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임무를 첩자 백석에게 맡긴 것이다. 백석은 신라에 잠입하여 화랑이 되어 여러 해 동안 낭도들과 어울리며 기회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는 고구려의 첩자 활동이 단순히 상대의 동정을 살피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적국의 요주의 인물, 즉 요인을 제거하거나 포섭하는 적극적인 차원으로까지 발전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²⁴⁾

이 사건은 우선 고구려의 첩자 활동의 영역과 수준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김유신이 장차 첩자활동과 첩보전에서 대한 인식하도록 자극한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24) 서의식, 앞의 책, 78~79쪽.

(2) 문무겸비와 병법서 탐구

김유신의 병법과 병법서에 대한 조예는 그의 열전 곳곳에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유가경전을 비롯한 문화적 소양도 상당했다. 이러한 문무겸비는 김유신뿐만 아니라 삼국 모두가 지도층에 대해 보편적으로 요구했던 기본 소양이었다.²⁵⁾ 문무겸비와 병법 및 병법서에 대한 김유신의 소양 내지 식견을 보여주는 사료를 살펴보자.

사료 2-1. “우리 군사가 패하였습니다. 제가 평생 충효스럽게 살겠다고 기약하였으니, 전쟁에 임하여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듣건대 ‘옷깃을 들면 가죽옷이 찢어지고, 벼리를 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하니 제가 그 벼리와 옷깃이 되겠습니다.”²⁶⁾

위 대목은 629년(진평왕 51) 김유신의 나이 35세 때 고구려와의 낭비성 전투 때 불리한 전황을 만회하기 위해 앞장서 나서며 한 말이다. 그가 인용한 ‘옷깃을 들면 ...’ 부분은 현전하는 자료로서는 『남제서(南齊書)』의 대목을 보다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²⁷⁾ 이 전투에서 김유신은

25) 이병도, 「백제 학술 및 기술의 일본 전파」, 『한국 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581쪽.
 줄고b, 「삼국시대 병법서의 수용과 그 활용」, 『민족문화』 제29집, 2006, 291~299쪽. 이 논문에서 필자는 ‘삼국시대 문무관의 문화적 소양’이란 측면에서 문무겸비를 검토했다.

26) 김유신(상).

27) 이 부분에 대해 『역주 삼국사기』(주석판, 하, 653쪽)에서는 『宋史』 「職官志」를 인용한 것으로 역주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다. 『송사』는 14세기에 이루어진 사서이기 때문에 7세기의 김유신이 이를 볼 수 없음은 당연하며 『삼국사기』의 찬자들이 삽입했을 가능성도 없다. 혹 『宋書』의 오류가 아닌가 했으나 『송서』에는 「직관지」 자체가 없다. 김유신이 인용한 이 부분은 『남제서』 권54(顧歡傳)-237: “臣聞學網提綱, 振裘持領, 綱領既理, 毛目自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삼국사기』의 원문은 “振領而裘正, 提綱而網張”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남제서』의 이 부분도 고환이 듣거나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출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혹, 고환이 이 표를 올리면서 함께 바친 『治綱』이란 책에서 인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본다. 참고로 『남제서』는 526년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보고 있다(『二十五史說略』, 北京燕山出版社, 2002, 158쪽).

적진을 세 번씩이라 넘나들며 적장의 목을 베었고, 여기에 고무된 신라 병사들이 맹공을 가해 5천 명이 넘는 고구려군의 목을 베고 성을 항복시켰다.²⁸⁾

사료 2-2. “내가 들으니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어려움을 당하여 자신을 잇는 것은 열사의 뜻이라 한다. 무릇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백 사람을 당해내고, 백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천 사람을 당해내며, 천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만 사람을 당해낼 수 있으니 그러면 천하를 마음대로 주름잡을 수 있다.”²⁹⁾

위 사료 2-2는 642년 대야성 전투에서 사위 김품석과 딸 고타소 및 손자들을 잃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김춘추가 고구려에 군사를 요청하러 가서 6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이 용감한 군사 3천³⁰⁾을 선발한 다음 그들을 격려한 말이다. 여기서는 김유신이 『한비자(韓非子)』의 한 대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무릇 ...’ 이하가 바로 그 부분으로, 『한비자』의 「초견진(初見秦)」편 한 대목이 그 출전이다.³¹⁾ 그 앞부분도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국 고전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³²⁾

28) 이 전투는 기록상 김유신의 첫 전투다. 김유신(상) 및 신라본기 제5 진평왕 51년조.

29) 김유신(상).

30) 이 3천 명은 신라본기 5 선덕왕 11년조(642)에는 ‘결사대 1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 훗날 김유신의 사병조직으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김유신의 첩보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견해다.
 노태돈, 「나대의 문객」, 『한국사연구』 21·22, 1976, 15쪽; 박순교, 앞의 논문, 130~131쪽 및 주142~144.

31) 『삼국사기』의 원문은 “夫一人致死當百人, 百人致死當千人, 千人致死當萬人, 則可以橫行天下”이고, 『한비자』의 원문은 “一人奮死可以對百, 百可以對天, 天可以對萬, 萬可以克天下”다. 자구에 약간의 출입은 있지만 의미는 일치한다.

32) 『사기』 권79 「范雎蔡澤列傳」에 보이는 범수의 “국왕이 근심하면 신하는 욕을 당하게 되고, 국왕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라는 말이나 권41 「越王勾踐世家」의 范蠡의 “신이 듣건대 국왕이 심려하면 신하는 고생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국왕이 모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말과 뜻은 통한다.

사료 2-3. “길함과 불길함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나라 주(紂) 왕은 붉은 새가 나타났어도 망하였고, 노나라는 기린을 얻어도 쇠하였으며, 은나라 고종은 장기가 울었어도 중흥을 이루었고, 정공(鄭公)은 두 마리 용이 싸웠으나 창성하였습니다.”³³⁾

위는 647년 비담의 난 때 큰 별이 월성으로 떨어지자 비담의 반란군은 고무된 반면 선덕왕이 두려워하자 김유신이 왕을 안심시키며 한 말이다. 여기에는 『시경(詩經)』, 『춘추(春秋)』, 『서경(書經)』, 『춘추좌전(春秋左傳)』 등 여러 유가 경전의 대목들이 인용되어 있다.³⁴⁾ 김유신이 유가경전에 대해 상당한 조예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긴 하지만, 경전 모두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기 보다는 중국의 역사와 고사에 밝았다고 보는 쪽이 타당할 것 같다.³⁵⁾

다음은 김유신이 유가경전은 물론 병법과 병법서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료들이다.

사료 3-1. (유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① 전쟁의 승부는 대소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인심이 어떤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② 그러므로 주(紂)에게는 수많은 백성이 있었으나 마음과 덕이 떠나서 주나라의 10명의 신하가 마음과 덕을 합친 것만 같지 못하였습니다. ③ 이제 우리 백성은 뜻을 같이하여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데 저 백제는 두려워할 바가 못됩니다.”³⁶⁾

사료 3-2. (유신이) 대답하였다. “대저 장수된 자는 나라의 간성(干城)과 임금의 조아(爪牙)가 되어서 승부를 싸움터에서 결판내야 하는 것이니 반

드시 위로는 하늘의 도(천도天道)를 얻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지리地理)를 얻으며, 중간으로는 인심을 얻은 후에야 성공할 수 있다.”³⁷⁾

사료 3-1은 648년 무렵 백제 공격에 앞서 김유신이 왕에게 올린 말인데, ①은 『손자병법(孫子兵法)』 제9 「행군(行軍)」의 “군대라는 것은 병력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³⁸⁾는 대목과 『오자병법(吳子兵法)』 「치병(治兵)」 제3에서 무후가 군대의 승리가 “병사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오기가 그렇지 않다면서 엄격한 명령, 분명한 상벌, 평소 훈련 등을 예시한 대목을 연상시킨다. ②는 『서경(書經)』 「태서(泰誓)」편에서 주(周) 무왕(武王)이 “은(殷)의 주(紂)는 억조(億兆)의 사람이 있으나 그들은 이심이 덕(離心離德)이요, 나는 난신(亂臣,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신하) 10인이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고 덕을 같이 한다”고 한 대목에서 나온 말이다. ③은 『손자병법』 제1 「계(計)」의 “도라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군주)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군주와 생사를 같이하며 위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에서 나온 말이다.

사료 3-2는 668년 고구려 정벌을 앞두고 동생 흡순과 조카 인문에게 김유신이 한 말로 앞부분의 ‘간성’과 ‘조아’는 『시경』 주남(周南)과 『한서(漢書)』 권54 이광열전(李廣列傳) 등에 나오는 표현이다. 뒷부분은 『손자병법』 제1 「계」편과 제10 「지형(地形)」편 등의 요지와 일맥상통하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육도(六韜)』 제4 「호도(虎韜)」편의 “장수는 반드시 위로는 천도(天道)를 알고, 아래로는 지리(地理)를 알며, 중간으로는 인사(人事)를 알아야 합니다”라는 대목과 연결된다.³⁹⁾

33) 김유신(상).

34) 『역주삼국사기』(주석편, 하), 661쪽.

35) 김태준은 앞의 논문, 150쪽에서 김유신이 피력하고 있는 安民의 도는 “오랜 동안의 역사 공부와 체험의 결과”라고 했다. 673년 김유신은 죽음을 예감하고 문무왕에게 치국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서경』과 『시경』을 인용하고 있다.

36) 김유신(상).

37) 김유신(하).

38) 『손자병법』의 역문은 김광수 해석하고 씀, 『손자병법』(책세상, 1999)에 따랐다.

39) 삼국시대 각국은 『손자병법』을 비롯한 중국의 병법서와 병법을 수용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런 점들을 단편적으로 지적한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해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0~21쪽.

김유신이 무예, 병법은 물론 고대 유가 경전 및 사서 그리고 제자백가서에 대해 상당한 조예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한비자』의 한 대목을 그대로 인용한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이는 군사가로서 김유신의 자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⁴⁰⁾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 김유신은 젊은 시절부터 문무겸비로 자신의 자질을 함양했다. 문으로는 유가경전을 비롯하여 역사와 제자백가서 등 다양한 전략서를 섭렵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법(法)·술(術)·세(勢)를 종합한 제왕학의 경전이자 법가의 통치방략을 대변하는 『한비자』까지 탐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무 방면으로는 무예 수련 외에 병법에도 정통했는데 『손자병법』과 『육도』를 탐독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젊은 날 고구려 첩자의 유인에 넘어가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 때문에 첩자와 첩보술에 대해 깊게 인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2. 첩보전 사례와 첩보술⁴¹⁾

젊은 날 김유신은 무예와 치국 방략에 대한 갈망과 위기에 몰린 나라를 구하겠다는 강렬한 염원을 품고 입산수도하여 자신을 수련했다. 이 과정에

허중권b, 앞의 논문, 140~141; 허중권c, 앞의 논문, 323~324쪽에는 중국 병법서의 유입은 물론 신라 무관(소부대 리더)들의 사상적 기반의 하나로 '무가(武家)적 요소'를 언급하면서 무관의 병법서에 대한 숙지와 신라 자체 병법서의 존재 가능성 등을 시사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필자는 졸고b, 앞의 글, 279~310쪽에서 병법서의 수용과 그 활용 문제를 비교적 심도있게 검토했다.

40) 김유신의 문무겸비와 군사가로서의 기본 자질에 관해서는 졸고b, 앞의 글, 295~298쪽 참고.

41) '첩보술'이란 군사학에서 말하는 '정보전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허중권b, 앞의 논문, 146쪽). 또 보다 넓은 의미로는 '欺瞞(Deception)'에 포함될 수도 있다(김광석 편저, 『용

서 고구려 첩자 백석의 꾀에 빠져 목숨까지 잃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 그는 문무겸비의 탄탄한 자질을 갖추었고, 특히 고구려의 첩보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다.

이후 김유신은 629년(35세) 고구려와의 낭비성 전투에 부장군으로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신라의 핵심 지휘관으로 중요한 전쟁과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군을 이끌었다. 연구에 따르면 김유신이 직·간접으로 참가한 전투나 전쟁은 총 18차에 이르는데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⁴²⁾ 이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전술과 작전을 구사하여 승리를 거두었는데, 첩보전에 해당하는 기만술, 정보전, 마비전술 등을 다양하게 활용했고 심리전 내지 심리술도 능숙하게 구사했다.

이와 함께 첩보전과 관련하여 김유신은 특히 첩자를 다양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군사 전략가로서 김유신의 면모와 그가 구사한 첩보술을 구체적인 첩보전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 심리전⁴³⁾

김유신열전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가 심리전에 대단히 능숙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적을 자극하는 심리술은 말할 것도 없고 자국 국민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데도 일가견이 있었다.

병술어연구』, 병학사, 1993, 148~150쪽). 『손자병법』 등 전통적 병가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첩자를 활용하는 '用間術'이라 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이와 관련하여 '첩자'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본고도 첩자활용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단 '첩보술'로 표현하고자 한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전개되면 적절한 용어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삼국시대 첩자 용어와 관련한 간략한 정보를 표로 만들어 본고의 말미에 부표로 제시해둔다.

42) 허중권b, 앞의 글, 152~153의 부표 2·3·4.

43) 허중권b, 앞의 글, 149쪽. 군사학에서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이란 "국가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국, 중립국, 아군 집단의 감정, 태도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치도록 사용되는 계획된 선전과 기타 활동"으로 정의된다(김광석, 앞의 책, 298쪽).

먼저 자국민이나 아군 장병들 상대로 한 심리술을 보여주는 사료다.

사료 4-1. 그 때 유신은 압량주 군주로 있었는데 마치 군사에 뜻이 없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며 몇 달을 보내니, 주위 사람들이 유신을 용렬한 장수라고 생각하여 헐뜯어 말하기를 “못사람이 편안하게 지낸 지가 오래되어 남는 힘이 있어 한번 전투를 해보지한 데 장군이 용렬하고 게으르니 어찌 할 것인가” 하였다. 유신이 이 말을 듣고 백성을 한 번 쓸 수 있음을 알고는 대왕에게 고하였다.⁴⁴⁾

사료 4-2. (647년) 겨울 10월, 백제 군사가 무산성, 감물성, 동잠성 등 세 성을 공격하여 (중략) 고전하여 기세가 꺾이자 유신이 비령자에게 “오늘의 사세가 급박하다! 자네가 아니면 누가 못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겠는가?” 하니 비령자가 절을 한 다음 “감히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적진에 나아갔다.⁴⁵⁾

사료 4-3. 유신이 말하기를 “당나라 군대의 식량 부족이 심할 터이니 마땅히 먼저 알려야겠다”고 하고는 보기감 열기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젊어서 그대와 놀 때 너의 뜻과 절의를 알았다. 지금 소 장군(소정방, 蘇定方)에게 소식을 전해야겠는데 적당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네가 가지 않겠는가?” 열기가 말하였다. “내 비록 어리석으나 외람되이 중군직을 맡았고, 하물며 장군님이 시키신다면 비록 죽는 날도 살아있는 때와 같다고 여기겠습니다.”⁴⁶⁾

사료 4-1은 648년 백제와의 대량성 전투를 앞두고 김유신이 군민들의 전의를 파악하기 위해 고의로 나태한 생활태도를 보임으로써 군민들의 전의를 자극한 내용을 전한다. 군민의 전의와 사기를 확인한 김유신은 객관적

44) 김유신(상).
45) 김유신(상).
46) 김유신(중).

으로 열세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백제 공격을 건의했고 결국은 백제 장군 8명을 사로잡는 등 대승을 거두었다.

사료 4-2는 대량성 전투가 있기 한 해 전인 647년 백제가 무산성 등 세 성을 공격했을 때의 상황을 전한다. 김유신은 보기 1만을 이끌고 세 성의 구원에 나섰으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유신은 비령자⁴⁷⁾를 불러 격려했고, 비령자는 적진으로 뛰어들어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그 아들 거진과 종 합절까지 따라서 적진으로 뛰어들어 힘껏 싸우다 전사했다. 이에 감동하고 격분한 병사들이 진격하여 백제군을 대파했다.

사료 4-3은 문무왕 원년인 661년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나선 당군에 식량을 보급하기 위한 과정을 전하고 있다. 이 때 김유신은 왕으로부터 국경을 벗어나면 상벌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전권을 위임받았다.⁴⁸⁾ 그런데 칠중하에 이르러 병사들이 겁을 먹고 배에 오르지 못하자 67세의 노구임에도 직접 나서 먼저 배에 오르고 수레를 미는 등 병사들을 자극하고 격려하여 평양 근처까지 당도했다. 이에 유신은 식량이 당도했다는 소식을 당군의 사령관 소정방(蘇定方)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열기를 불러 그를 격려했고 열기는 이 임무를 무사히 수행해냈다.⁴⁹⁾

위 사료들은 김유신이 자국민이나 장병들의 전의 내지 사기를 고의로 자극하는 심리술을 잘 보여준다. 이를 전통적인 병가에서는 ‘격장술(激將術)’이라 하는데 ‘격장술’은 적에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기편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자기 쪽에 사용하는 목적은 장수·부하·사졸의 격정을 분발케

47) 비령자는 열전 제7에 그의 전기가 전하는 데, 대체로 김유신이 화랑을 이끌었을 때 그 밑의 낭도로 보고 있다(『역주삼국사기』 주석편 하, 792쪽). 한편, 비령자·거진·합절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들을 김유신이 642년 김춘추의 고구려 방문을 계기로 거느리게 된 1만(또는 3천) 병사들을 축으로 한 김유신의 사적 지휘와 훈령체계 하에 있는 사병적 성격이 강한 군단의 일원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박순교, 앞의 논문, 130쪽 주142).
48) 문무왕이 김유신에게 전권을 부여한 것은 『손자병법』 제3 「모공」편에서 말하는 승리의 요소 다섯 가지 중 “장수가 능력이 있고 군주가 장수의 지휘권에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실천한 것이다.
49) 이상 김유신(중).

해서 적을 물리치는 힘을 증강하자는데 있다. 나약함을 나무라며 용기를 자극하고, 어리석음을 꾸짖어 지혜를 자극한다. 모든 군인은 모두 강렬한 명예심과 영웅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명예심과 영웅주의 정신은 일단 폭발하면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변할 수 있다. '격장술'은 바로 이런 정서에 불을 붙이는 촉매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유신은 이러한 '격장술'을 유효적절하게 잘 구사한 군사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병법에서 볼 때 김유신은 『손자병법』 제7 「군쟁(軍爭)」편의 핵심인 '사기(士氣)'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제8 「구변(九變)」편에서 경고한 장수가 경거망동이나 분을 참지 못해 서두르다 전군을 위협에 빠뜨리게 만드는 '오위(五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유신의 심리술 내지 심리전은 자국의 군민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적군을 상대로도 구사되었다. 먼저 다음 사료를 보자.

사료 5-1. 돌아오다가 길에서 항복해오는 백제의 좌평 정복과 병사 1천 명을 만나자 모두 석방하여 각자 가고 싶은 대로 맡겼다.⁵⁰⁾

위 사료는 649년 가을 백제와의 도살성 전투에서 기막힌 반간계(反間計)로 대승을 거둔 직후의 일을 전한다.⁵¹⁾ 승리를 거둔 다음 돌아오는 길에 백제 최고위층 인사인 좌평 정복 등 1천 명이 항복해오자 이들을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게 놓아 주었다는 내용이다. 정복 등이 무슨 까닭으로 항복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무렵 백제 내부의 신구 세력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⁵²⁾는 점으로 볼 때 정복 역시 그 갈등의 와중에서 신라로

50) 김유신(중).

51) 이 전투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52) 김주성, 앞의 논문, 267쪽. 이에 대해 양중국은 백제의 멸망은 지배층 내분보다는 국제관계의 변화라는 새로운 시대상황 속에서 신라와 손을 잡은 중국의 당이라는 거대한 외부세력의 개입 때문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백제 멸망의 진실』, 주류성, 2004.

의 투항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김유신의 조치인데, 백제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고등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보다 앞서 648년 대량성 전투에서 사로잡은 8명의 백제 장군들을 대야성 전투에서 죽은 김품석 부부의 유골과 교환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김유신은 "한 잎이 떨어진다 고 하여 무성한 수풀이 줄어들지 않으며, 한 티끌이 쌓인다고 하여 큰 산이 보태지는 법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8명의 백제 장군을 돌려보냈다. 이 역시 백제 고위층의 심리적 동요를 겨냥한 심리전술로 볼 수 있게 한다. 즉, 신구 세력간의 갈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하던 백제 고위층은 김유신이 보여준 포로들에 대한 관대한 조치로 심리전에서 적지 않게 동요했던 것 같다. 정복의 투항이 그렇고 뒤에서 검토하게 될 백제 좌평 임자의 경우에서도 이런 조짐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적국에 대한 김유신의 심리전술은 백제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먼저 다음 사료를 보자.

사료 5-2. 유신이 일찍이 한가윗날 밤에 자제를 거느리고 대문 밖에 서 있는데 문득 서쪽으로부터 오는 사람이 있었다. 유신은 그가 고구려 첩자임을 알고 불러 앞에 세우고 말하기를 (중략) 유신이 말하였다. "우리나라 임금님은 위로는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잃지 않아서 백성이 즐겁게 모두 자기 일을 즐기고 있음을 지금 내가 보았으니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⁵³⁾

위 사료는 백제를 합병한 660년 이후의 일을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유신은 고구려 첩자의 존재를 첩보를 통해 사전에 인지하고 고구려 첩자

82쪽 외).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648년 무렵 백제 지배층 내부에는 심각한 분열과 동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백제에 대한 김유신의 첩보전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검토될 것이다.

53) 김유신(중).

를 반간(反間)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 첩자를 살려 보내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하는 대적국 홍보 전략이다. 이는 크게 보아 선전(宣傳, Propaganda)에 해당하며 심리전의 범주에 포함된다.⁵⁴⁾ 고구려 첩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이 일을 보고했고 고구려 사람들은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유신이 재상을 하고 있는 한 가벼이 할 수 없다”⁵⁵⁾ 했다고 하니 김유신의 선전술이 나름대로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⁵⁶⁾

(2) 첩보전과 내간(內間) 활용

다음으로 첩보술과 관련하여 김유신의 첩자활용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김유신의 행적⁵⁷⁾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642년 대야성 전투 참패를 바로 뒤 이은 김춘추의 고구려행이다. 기록상으로 사실 김유신의 전투 참여는 35세 때의 629년 낭비성 전투를 제외하면 모두 642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김춘추의 고구려행을 계기로 김유신이 1만(또는 3천)의 사병적 성격이 짙은 군사를 거느리게 된 점도 관심을 끈다. 그의 첩자활용과 첩보술도 모두 642년 이후 그 진가를 발휘한다. 먼저 642년 대야성 전투와 김춘추 고구려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자.

사료 6-1. (선덕왕) 11년(642) 가을 7월에 백제왕 의자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나라 서쪽 40여 성을 쳐서 빼앗았다. 8월에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하여 당항성을 빼앗아 당나라와 통하는 길을 끊으려 하였으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 (당) 태종에게 위급함을 알렸다. 이 달에 백제 장군 윤충이 군사

54) 김광석, 앞의 책, 298쪽.

55) 김유신(중).

56) 이 기록들이 김유신의 행적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료상의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유신의 방첩망과 그의 선전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57) 김유신의 주요 행적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본기와 김유신(상·중·하) 및 허중권b, 앞의 논문, 151쪽 '부표1. 김유신의 연보' 참조.

를 이끌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도독 이찬 품석과 사지 죽죽·용석 등이 죽었다.⁵⁸⁾

사료 6-2. (642년) 겨울에 왕이 장차 백제를 쳐서 대야성에서의 싸움을 보복하려고 하여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를 청하였다.⁵⁹⁾

사료 6-3. 어느 사람이 고구려 왕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신라 사신(김춘추)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온 것은 아마 우리의 형세를 살피려는 것 같으니 왕은 도모하시어 후환이 없게 하소서.”⁶⁰⁾

사료 6-4. 고장(보장왕)이 그(김춘추) 말의 불손함에 화가 나서 그를 별관에 가두었다. 춘추가 몰래 사람을 시켜 본국의 왕에게 알리니 왕이 대장군 김유신에게 명하여 결사대 1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하였다.⁶¹⁾

사료 6-5. (고구려 왕이) 노하여 그를 가두고 죽이려 하였으니 미처 처형하지 않았는데, 춘추가 청포 300보를 은밀히 (고구려) 왕이 총애하는 신하 선도해에게 주었다.⁶²⁾

사료 6-6. 그 때 고구려 간첩 승려 덕창이 사람을 시켜 (고구려) 왕에게 아뢰었다. (고구려) 왕은 이미 춘추의 맹서하는 약속을 받았고, 또 간첩의 말을 들었으므로 더 잡아 둘 수가 없어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⁶³⁾

이상은 642년 가을 대야성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신라가 그 해 겨울 바로 고구려에 청병을 위해 김유신을 사신으로 파견했다가 우여곡절

58) 신라본기 제5 선덕왕 11년조. 한편 백제본기 제6 의자왕 원년조에는 품석이 처자(김춘추의 딸 고타소)와 함께 나와 항복하자 윤충이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서울에 전달했다고 되어 있다.

59) 신라본기 제5 선덕왕 11년조.

60) 김유신(상).

61) 주59).

62) 주60).

63) 위와 같음.

끝에 간신히 살아 돌아오는 상황을 대체적으로 전하는 사료들이다.

그런데 신라가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데에는 대야성 성주 품석이 그의 모사였던 검일의 아내를 탐하는 바람에 검일이 백제 첩자 모척과 모의하여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⁶⁴⁾ 이에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를 요청하기로 하고 그 해 겨울 바로 춘추를 고구려에 사신으로 보낸다. 이 과정에서 춘추는 김유신과 더불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마시는 등 비장한 각오를 다졌는데, 이는 대야성 전투의 치욕적인 패배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된 행동으로 보인다.⁶⁵⁾

한편 642년 그 해에는 고구려에서도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⁶⁶⁾ 의자왕으로 즉위로 출발한 642년 한 해는 이처럼 삼국 모두에서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공교롭게 이 과정 모두에 첩자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우선 대야성 전투에서는 백제의 첩자 모척이 상관에 불만을 품은 신라 김품석의 막객 검일을 포섭하여 내통함으로써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김춘추가 고구려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은 결사대를 이끌고 출정하려 했고 이를 고구려 첩자 승려 덕창이 본국에 첩보함으로써 김춘추가 풀려났던 것이다.

그런데 김춘추의 고구려행을 살펴보면 신라 역시 고구려에 대한 첩보를 행했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먼저 위기에 처한 김춘추가 청포 300보로 고구려 왕이 총애하는 선도해란 자를 포섭한 대목이다. 청포 300보는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면서 들른 대매현의 사간 두사지란 인물이 건넨 것으

64) 이 경과에 대해서는 열전 제7 죽죽에 상세하다. 이와 함께 신라본기 제5 무열왕 7년조도 함께 참조.
 65) 김춘추의 고구려행의 전체 과정과 그 목적 등에 대해서는 박순교, 앞의 논문, 127~134쪽에 잘 분석되어 있다.
 66) 이에 대해서는 열전 제9 개소문전과 고구려본기 제8 영류왕 25년조 및 보장왕 원년조 참고.

로, 공식 예물이 아닌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하려 한 비자금의 성격이 짙다.⁶⁷⁾ 김춘추는 이 청포로 선도해를 포섭하여 그로부터 '토끼의 간' 우화를 듣고 위기에서 빠져나온다. 이 때 의심이 가는 인물이 바로 선도해인데, 이 자는 신라가 진작에 고구려에 심어 놓은 내간(內間)⁶⁸⁾의 성격이 농후하다. 또 이와 함께 자신이 처한 위기를 알리기 위해 춘추가 몰래 보낸(사료 2-8) 인물도 첩자로 의심할 수 있는 혐의가 짙다.

이상과 같은 추정에 무리가 없다면 김유신은 김춘추의 고구려행에 앞서 그와 함께 사전에 첩자 파견이나 고구려 내부 주요 인사와의 사전 접촉 등과 같은 첩보 활동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왕의 측근인 선도해⁶⁹⁾를 포섭해둠으로써 결정적인 고비 때 활용하여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었다.

642년 김춘추의 고구려행은 삼국 내부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대야성 전투의 참패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한 김춘추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신라 내에서의 국면을 완전히 전환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었다. 김유신은 결사대 1만(또는 3천)을 거느리게 됨으로써 군사적 입지가 굳어졌다.⁷⁰⁾ 한편 고구려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신라는 당과의 연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결국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함으로써⁷¹⁾ 궁극적으로 백제와

67) 김유신(상). 청포의 성격에 대해서는 박순교, 앞의 논문, 124쪽.
 68) '내간'이란 『손자병법』 제13 「용간」편에서 말하는 다섯 종류의 첩자, 즉 '오간(五間)'의 하나로 '적국의 관민을 첩자로 이용하는 것'이나 그런 성격의 첩자를 말한다. 『손자병법』 「용간」편에 대한 분석은 참고a, 앞의 논문, 9~11쪽.
 69) 선도해가 왕이 총애하는 신하로 표현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당시 고구려는 연개소문 쿠데타의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탐지한 김춘추와 김유신이 연개소문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왕'의 측근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춘추를 고구려를 염탐하러 온 '첩자'로 단정하여 제거하자고 건의한 '어느 사람', 즉 '어떤 자'는 연개소문의 측근일 가능성이 있다.
 70) 이 무렵 그가 압량주 군주가 된 사실도 김춘추의 고구려행이 당시 신라로서는 얼마나 크고 중요한 사건이었나를 잘 말해준다.
 71) 김영하a, 앞의 논문, 116쪽에서는 백제의 멸망을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나·당 연합군의

고구려의 멸망으로 귀착되어 동아시아 국제정세 전반이 재편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3) 반간계(反間計)

첩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642년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김유신은 새삼 첩보와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첩자 활용과 첩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제에 대한 첩보와 첩자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던 것 같다. 다음 사료를 보자.

사료 7-1. 진덕왕 3년(649년) 8월, 백제의 장군 은상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석도 등 일곱 성을 공격하여 함락했다. (신라) 왕은 대장군 유신, 장군 진춘, 죽지, 천존 등에게 나가 막도록 명령했다. 십여 일 동안 전투를 벌였지만 해결되지 않자 도살성 아래에 주둔했다. 김유신은 여러 사람들에게 “오늘 틀림없이 백제가 정탐하러 올 것이니 너희들은 모른 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군대를 돌아다니며 “(적이) 튼튼한 벽처럼 꿈쩍도 않으니 내일 원군이 오길 기다렸다가 결전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첩자가 이를 듣고는 돌아가 은상에게 보고했다. 은상 등이 적병이 늘 것이라며 수근대며 의심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틈타 김유신 등이 진격하여 대패시켰다.⁷²⁾

위 기사에서는 신라와 백제 양국이 모두 첩자를 상대국에 잠입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김유신의 첩자활용술이 돋보이는 데, 김유신은 백제의 첩자가 침투해 있음을 확인하고는 이를 반간으로 역이용했다. 또 본기에는

협공이라는 외압을 들고 있다. 양중국, 앞의 책도 비슷한 논지다.

72) 신라본기 5 진덕왕 3년(649)조. 여기에서 진덕왕 3년은 2년의 잘못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건을 보다 자세히 기록한 김유신열전에는 2년으로 나와 있다. 본기와 열전의 기록은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김유신이 비둘기와 같은 새를 통신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열전에는 보인다.

없는 열전의 ‘물새가 동쪽으로 날아와 유신의 군막을 지나갔다’는 대목은 김유신이 첩보술의 하나인 ‘통신’ 수단의 하나로 동물, 구체적으로 비둘기와 같은 새 종류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⁷³⁾ 또한 김유신의 이러한 첩자활용을 병사는 물론 직속 장수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손자병법』 제13 「용간」편에서 말하는 “첩자의 운용만큼 비밀을 요하는 일도 없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킨 것이다. 이처럼 김유신은 첩자운용 원리를 정확하게 숙지하면서 시기적절하게 첩자를 활용하여 이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다. 무엇보다 김유신이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그 타개책으로 첩자를 활용한 것은 그가 군사에 있어서 첩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4) 고정 침투 첩자의 활용

사료 8-1. 이에 앞서 급찬 조미압이란 자가 부산현 현령으로 있었는데, 백제에 포로로 잡혀가 좌평 임자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다. 임자가 그를 의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입하게 했다. 이에 도망쳐서 돌아와 유신에게 백제에서의 일을 알렸다. 유신은 조미압이 충성스럽고 정직한 것이 쓸만하다고 판단하여 “듣자 하니 (좌평) 임자가 백제의 일을 전담하고 있다는 데 함께 의논하고 싶어도 계제가 없었다. 내가 나를 위해 다시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고 했다. (조미압은) “공께서 나를 불초하게 여기시지 않고 일을 시키시니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다시 백제로 들어가 임자에게, “제가 이미 이 나라 국민이 되었으니 나라의 습속을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나가서 수십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개와 말이 주인을

73) 고대의 다양한 첩보술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가 된다. 褚良才, 『中國古代間諜史話』, 中州古籍出版社, 1998. 孫厚洋, 『中國古代用間術』, 河北人民出版社, 1990. 于彥周, 『間諜與戰爭』, 時事出版社, 2005.

생각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임자는 이 말을 믿고 나무라지 않았다. 틈을 보던 조미압은, “지난번에는 별을 받을 까봐 감히 바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신라에 갔다가 돌아왔사온데, 유신이 저에게 다시 가서 공께 ‘나라의 흥망이란 미리 알 수 없는 일이니, 그대의 나라가 망하면 그대가 우리나라에 의지하고, 우리나라가 망하면 내가 그대의 나라에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전하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임자는 듣기만 하고 말이 없었다. 조미압은 황공해 물러나와 별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두어 달이 지난 다음 임자가 불러, “지난번 네가 전한 유신의 말이란 것이 어떤 것이었지?”라고 물었다. 조미압은 놀라움 반 두려움 반으로 그전대로 대답해 주었다. 임자는, “네가 전한 말을 잘 알았으니 가서 (유신에게) 알리도록 해라”라고 말했다. 마침내 (조미압)은 돌아와서는 (백제의) 이런 저런 일들을 소상하게 알리니 (백제를) 합병할 계획을 더욱 서둘러 추진했다.⁷⁴⁾

긴 사료를 전문 인용한 까닭은 이 기사가 김유신의 첩자활용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유신은 백제에 포로로 잡혀가 백제 고위직에 있는 좌평 임자의 집에서 오랫동안 종노릇을 하면서 신임을 얻은 조미압이 탈출해오자 그를 다시 백제로 돌려보내 첩자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김유신은 조미압에게 기회를 봐서 주인 임자를 포섭하라는 중대한 임무를 주는 데, 그 내용이 대단히 놀랍다. 누가 되었건 나라가 망하면 서로를 돌봐 주기로 약속한 것이 그것인데, 이는 자칫 반역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유신은 이런 대담한 첩자활용술을 통해 백제의 정세와 관련된 고급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참고로 백제 합병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백제 고위층 임자를 포섭하는 과정도 치밀하다. 위 사료를 잘 음미해보

74) 김유신(중). 이 기록은 영희 6년, 즉 655년 유신이 백제를 공격한 기사 다음에 나오는데, 유신이 백제를 공격하기에 앞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655년 이전의 일이다. 김유신은 조미압과 포섭된 백제 좌평 임자의 첩보를 바탕으로 655년 백제 도비 천성을 공격하여 승리한 다음, 왕에게 백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벌을 계획하고 있다.

면, 김유신은 오랫동안 그것도 백제 최고위층 관리의 집에 있으면서 백제 상황에 밝은 조미압을 선발하여, 사상 교육을 비롯한 철저한 첩자 훈련을 시킨 다음 다시 백제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인다.⁷⁵⁾ 김유신은 조미압이 임자에게 전할 밀지를 주는데,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하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조미압은 백제 고위층 깊숙이 침투한 고정 첩자였던 것이며, 좌평 임자는 내간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 김유신의 첩자활용술은 『손자병법』 제13 「용간」편의 핵심 사상과 이론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다. 특히 첩자의 다섯 종류인 향간(鄉間), 반간(反間), 내간(內間), 사간(死間), 생간(生間) 중에서도 반간을 가장 중시하라고 한 지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간을 활용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⁷⁶⁾ 이와 함께 “간첩의 운용만큼 비밀을 요하는 일도 없다”는 첩자활용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수칙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은 『손자병법』의 다음과 같은 용간술의 핵심을 거의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⁷⁾

“공격하고자 하는 군대와 공격하고자 하는 성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그 장수, 좌우 측근, 조연자, 성문 감시자, 집사 등의 이름을 알아두고 우리 간첩에게 이들을 살피도록 한다. 한편 적의 간첩으로 우리 쪽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이들에게 솔깃한 것을

75) 위 기사 중 조미압이 김유신에게 “공께서 저를 불초하게 여기시지 않고 일을 시키시니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이나, 조미압이 임자에게 돌아가 한 말 등은 사전 모의나 교육을 통해 준비된 언행으로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조미압은 급찬에 부산현 현령이라는 관직에 있었던 인물이라 김유신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76) 김유신이 향간을 활용한 사례도 보인다. 즉, 고구려 공격에 나선 당군의 식량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유신이 양오 지방에 이르자 한 노인이 적국의 소식을 상세히 말해 주었다는 내용이 그의 열전(중)에 보이는 데, 이 정체불명의 노인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연고지의 사람을 활용하는” 향간으로 보인다.

77) 『손자병법』 제13 「용간」편에 대한 분석은 김광수, 앞의 책: 줄고, 앞의 논문, 7~12쪽 참고.

주어 끌어들이고 편안한 집으로 이끈다. 이렇게 반간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의 사정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향간과 내간까지 얻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적의 사정을 더 깊게 알게 된다”(제13 「용간」).

4. 맺음 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김유신을 두고 다음과 같이 혹평했다.

“삼국사기 김유신전을 보면, 유신은 전략과 전술이 다 남보다 뛰어나 백전백승의 명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개는 그의 패전은 가려 숨기고 조그만 승리를 과장한 것이 기록이다.”

“김유신은 지혜와 용기 있는 명장이 아니라 음험하고 사나운 정치가요, 그 평생의 큰 공이 싸움터에 있지 않고 음모로 이웃나라를 어지럽힌 사람이다.”⁷⁸⁾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민족의 자긍과 자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단재의 일생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평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김유신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면 단재의 이러한 평가는 『삼국유사』에서 김춘추와 “김유신이 함께 신통한 피와 힘을 합하여 삼한을 통일하였다”라고 한 대목의 ‘신통한 피’와 표현만 달랐지 그 의미는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또 이는 그의 문무겸비를 비롯하여 병법과 병법서에 능통했던 자질의 또 다른 표현이자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었던 군사가로서

의 면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⁷⁹⁾

문무겸비라는 이상적 군사가로서의 면모는 김유신에게서 발견되는 커다란 장점이자 미덕이다. 이러한 요소는 삼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국론을 일치시키고 솔선수범하여 병사들을 이끄는 김유신의 모습은 가장 약체였던 신라가 끝내 삼국을 통합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부각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모습의 이면에 치밀하게 조직되고 계산된 첩보전의 전문가라는 모습이 겹쳐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그것은 단순한 힘겨루기의 차원이 아니다. 총체적 국력 겨루기이자 지혜의 겨루기다. 지혜 겨루기란 달리 말해 ‘정보전’이다. 정보전의 중요성은 오늘날 그 중요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고대라 해서 하등 다를 것이 없었다. 김유신은 정보전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결합하여 수준 높은 정보전을 전개했다. 그가 보여준 고도의 첩자활용술과 첩보술은 그가 구사한 정보전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김유신을 바라보던 충과 무공이라는 두 개의 단선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군사가로서 그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주로 첩자활용과 첩보술을 검토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을 그의 문무겸비와 병법에 대한 조예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다만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한 첩보조직이란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원고투고일 : 2007. 1. 25,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김유신, 문무겸비, 병법, 첩자, 첩보전

78) 신채호, 『조선상고사』, 일신서적출판, 312·314쪽.

79) 단재는 음모가로서의 김유신을 혹평하면서 바로 첩자 조미압의 사례를 들고 있다.

<부표> 삼국시대 첩자 관련 용어 정보표

이름	출전	비고
래첩(來諜), 첩자(諜者)	『사기』 권5 '신라' 5 : 권42 '김유신열전'(중)	진덕왕 3년(649) 백제 → 신라 → 백제
규첩(窺覘)	권6 '신라' 6	문무왕 10년(670) 백제 → 신라
세작(細作)	권7 '신라' 7	문무왕 11년(671) 신라 → 당, 고구려
향도(鄉導)	권7 '신라' 7 (신라 숙위학생 풍훈이 당을 위하여 향도를 자처함.)	문무왕 15년(675)
반간(反間)	권13 '고구려' 1	유리왕 11년(기원전 9) 고구려 → 선비
행인(行人)	권18 '고구려' 6	장수왕 54년(466) 위 → 북연
척(斥), 봉후(烽候)	권20 '고구려' 8	영양왕 23년(612) 고구려 → 수
첩(覘)	동상	동상 수(백제) → 고구려
첩(覘)	동상	영류왕 24년(641) 당(진대덕) → 고구려
규사(窺伺)	권21 '고구려' 9	보장왕 사론 고구려 → 당
사(伺), 첩(諜)	권22 '고구려' 10 : 권49 '개소문열전'	보장왕 25년(666) 남생 → 남건, 남산
향도(鄉導)	동상	보장왕 27년(669) 당(남생) → 고구려
간첩(間諜)	권25 '백제' 3	개로왕 21년(475) 고구려 → 백제

이름	출전	비고
군도(軍道=軍導)	권27 '백제' 5	위덕왕 45년(598) 백제(수) → 고구려
첩(覘)	동상	무왕 8년(607) (수)백제 → 고구려
첩자(諜者)	권41 '김유신열전'(상) (고구려 승려 첩자 덕창)	선덕왕 11년(642) 고구려 → 신라 → 고구려
사간(伺間)	권41 '김유신열전'(중) (조미압을 첩자로 활용)	태종무열왕 1년(654) 신라 → 백제
첩지(諜知)	동상	태종무열왕 7년(660) 당 → 신라
첩자(諜者)	동상 (고구려 첩자를 파악한 김유신)	고구려 → 신라
첩(覘)	권44 '거칠부열전'	6세기 중반 신라(거칠부) → 고구려
첩자(諜者)	권47 '해륜열전'	문무왕 15년(675) 말갈 → 신라
첩자(諜者)	『유사』 권 제4 '의상전교' (원효와 의상이 고구려에게 첩자 혐의를 받고 구금됨)	진덕왕 4년(650)
첩자(諜者), 첩인(覘人)	『자치통감(資治通鑑)』 권198 : 『신당서(新唐書)』 권220 (고구려 첩자 고죽리)	정관 19년(645)

※ 표에서 『유사』는 『삼국유사』를, 『사기』는 『삼국사기』의 줄임말이며, 『삼국사기』의 '신라본기'는 '신라', '고구려본기'는 '고구려', '백제본기'는 '백제'로 줄였고 나머지 편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비고란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줄기를 파악하기 쉽게 각국의 왕과 연도 및 첩자활용국과 상대국을 함께 →로 표시해두었다. 첩자와 관련된 용어들을 소개한 표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명백히 첩자 활동을 기록은 사료들이 빠져있다. 이 기록들을 합치면 관련 항목들은 훨씬 늘어난다.

<ABSTRACT>

A Research on the Utilization of Spies and
Intelligence War of General *Kim Yu-sin*(金庾信)

Kim, Young-soo

General *Kim Yu-sin* was greatly interested in military arts since his youth and had read a number of Chinese books on Confucianism and military strategy, which was translated into his high capability of both civilian and military arts. In particular he had another thought on spies after he was almost kidnapped by a *Geoguryeo* spy. After *Kim Chun-chu*(金春秋) visited Koguryo in AD 642 General *Kim Yu-sin* concentrated more on intelligence war and succeeded in winning elite leaders of *Baekje* to his Silla side through an elaborate plan. In addition he won wars by utilizing 'trick of counter-spy(反間計)', a tactic outmaneuvering spies of enemy country. *Baekje* and its leaders were disrupted and split by intelligence war of General *Kim Yu-sin* and eventually led to its demise.

Literature on General *Kim Yu-sin* mainly emphasized his loyalty and filial piety based on an ideology of *Silla* Dynasty. In this sense I think my research is different from other studies and would help in shedding a new light on General *Kim Yu-sin* as a prominent military leader.

Key Words : General *Kim Yu-sin*(金庾信), Combination of Civil and Military Arts,
Military Tactics and Strategy, Spies, Intelligence War